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소화력이 뛰어나면서 영양상태가 개선되도 단백질대사가 증강된다. 그리고 허약상태로 인한 대사기능 저하의 병리현상도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쥐의 고온 적응력과 저온의 내수력을 실험하였을때 녹용을 먹인 생쥐에서 저항력이 증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의 冷熱 자극 적응성도 제고되는 것을 보아 이것은 결국 면역기능의 증강효과로 꼽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녹용이나 신체의 반응도 민감한 개개의 보약들을 처방해서 복용시켰을때에 면역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체내에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진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용속에 들어있는 多糖성분들은 실험적으로 유발한 위폐양에 대하여 항괴양작용이 현저하게 입증되었다. 이것은 결국 위산과다로 인한 괴양에 억제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심작용

녹용을 생쥐에게 투여하였을때에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수축폭을 넓게 하고 있으며 심을을 완만하게 하므로 강심작용이 증명되는 것이다.

아울러 실험성의 心律失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여할 뿐아니라 산소결핍증을 해소시키는 효능이 있고 급성失血性 저혈압을 회복시키는 작용이 현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의 전도작용이상에도 녹용에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실험들은 심장질환환자의 치료는 물론 예방차원에서조차 복용을 권장해야할 것이다.

鹿茸藥針 요법

최근에 개발되는 약침요법에서는 이제제

가 개발되어 陽虛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사함으로 복용시보다 더 신속한 치유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陽虛로 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루 불감증 유정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에 치유력이 강력하다.

또한 신장의 기능허약과 차서 발병하는 오랜 설사와 하복부의 냉감에 근육 주사제를 사용하여 치유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심장의 근육 수축작용을 촉진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녹용주사제에서도 25~30일간 치료함으로써 일정한 효력을 얻어냈다.

피부손상회복

피부에 창린이 발생하여 오래도록 치유되지 않고 피부색이 암담색으로 변화하는 것은 모두 신장이 허약하여 精血이 휴손되어 일어나 것이므로 녹용을 가미한 內托外陷의 치료제를 합방해서 다스리면 원형으로의 회복과 완치가 가능하다.

3. 치료제로서의 기능



崔 春 根
(구천당한의원)

녹용하면 일방적으로 보약으로만 생각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 봄이나 가을을 택하여 그것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자집이 아니면 복용치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못살던 70년대 이전에 몸이 마르고 힘이 없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안되었던 그시절 이야기이다. 근래와서는 어느 누구도 살찌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녹용을 복용

할 수 있는 계절은 사시사철 어느때고 상관없다. 한의사들은 녹용에 가미되어 있는 약을 복용시키면서 운동을 하여 땀을 흘리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의 균형을 잡고 비대증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다. 녹용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분류되지만 열대지방에 있는 녹용은 효험이 적고 특히 늑지대의 녹용은 효과가 적다. 녹용은 중국산 즉 옛날에 원나라산 녹용인 소위 원용을 제일로 알아준다. 따라서 같은 녹용이라 할지라도 상·중·하(上中下)가 있어 부위별 사용 용도도 조금씩 다르며 상은 상대.중은 중대.하는 하대로 구분하여 사용했다. 녹용의 성장과정을 보면 1년에 3월부터 6월까지만 사슴의 뿔이 자라기 때문에 사슴뿔을 만져보면 6월말쯤의 뿔의 온도가 가장 높다. 또한 뿔이 6월이 지나면 뿔위쪽에서부터 피가 내려가 12월쯤되면 녹용이 녹각으로 변해서 떨어진다. 녹혈의 복용시기는 6월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복용하면 풍부한 영양가의 녹혈을 섭취할 수 있다.

두통

두통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허·실(虛·實)에 따라 구분하는데 허증으로 오는 두통 즉 혈허두통(피가 모자라서 오는 두통)에는 당귀보혈탕에 녹용 또는 다른 약제를 가미하여 쓰면 신속하게 치료가 된다. 기혈이 모자라서 오는 두통은 가미십전대보탕을 녹용과 함께 쓰면 치료가 되는데 여기에는 녹용상대가 더 효과적이다.

현기증

현기증에는 자음건비를 시켜야 되는데 자음이란 음을 보하고 건비란 비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는 녹용이 최고다. 처방으로는 자음건비탕, 보중익기탕, 사물탕,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등을 가미하거나 합방하여 사용한다.

간질병

간질병은 대개가 허증이다. 그러므로 녹용을 간질약에 가미하여 쓰면 상당한 효험이 있다. 여기에 처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간질의 종류와 증상이 각기 달라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증

이명증은 귀가 매미소리같이 우는 것을 말하는데 신장기능이 약하거나 약물과다 섭취 또 중이염등에서 오는데 여기에도 녹용을 가미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 처방으로는 육미지황탕, 십전대보탕, 팔보환등이 있다.

중이염

중이염은 귀속에서 염증이 생겨 농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녹용중에서 하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처방으로는 십전대보탕 가미방, 소요산, 가미방등이 있다.

안면신경마비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좌우에 올수 있는데 우측에 오는 것은 기허증 좌측에 오는 것은 혈허증이라고 하며 혈압이 높아져 오는 신경마비도 있다. 녹용을 가미하는 신경마비는 혈허증에 사용한다. 혈허증은 육미지황탕을 가미해서 쓰고 기허증은 보중익기탕에 가미해서 사용한다.

삼차신경마비

삼차신경마비나 경련은 신경의 교차가 안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를 잘 시켜야 한다.

처방으로는 복령탕이나 보중익기탕에 녹용을 가미해서 사용한다.

갑상선염

갑상선염은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으로부터 구분된다. 갑상선염은 홀몬대사기능

장애로 생기는데 여기에 따라 처방이 구분된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이뇨제가 많이 들어가면 소변양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피로가 오면서 심한 경우는 졸도까지 오는 위험한 증상이다. 여기에도 녹용이 치료제로 사용된다. 처방으로는 육미지황탕 또 보중익기탕이 쓰여진다.

폐결핵

폐결핵은 감기·과로 또는 늑막염 등으로 생기는데 여기에도 역시 녹용이 사용된다. 녹용은 상대로 써야 효과가 크다. 처방으로는 육미지황탕 자음강화탕, 사물탕등에 녹용과 그외 보제를 가미하면 완치시킬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 결핵치료제가 나왔으나 부작용이 심하여 위장이 좋지않은 결핵환자는 치료가 어려우며 근래에는 결핵이 더 극심하여 제3의 결핵이라 하여 전국적으로 초비상이라 한다.

늑막염

늑막염하면 전성늑막염, 습성늑막염 결핵성 늑막염등이 있다.

늑막염에는 녹용하대를 사용하는데 처방으로는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 이진탕등이 사용되는데 증상에 따라 처방을 잘 선택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잉어가 효과가 컸었다.

신장염 및 방광염

신장염과 방광염 치료에는 녹용이 사용되는데 하대를 쓰는 것이 좋다. 처방으로는 육미지황탕을 가감하여 사용하면 치료가 잘 된다.

정력부족

정력부족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정을 보하자면 혈액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녹용상대가 좋으며 처방으로 육미지황탕, 심한 피로를 동반할 경우는 가미쌍화탕이 좋다.

불임증

불임증은 증상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특히 임신은 혈에 의해 되기 때문에 녹용이 절대적이다. 처방으로는 부익지황탕, 종옥탕, 조경탕, 오적산등에 녹용과 증상에 따라 약제를 가미하여 쓰면 된다.

소아마비

소아마비는 상·하지를 신경마비로 못쓰는 증상으로 녹용이 절대적이다. 처방으로는 보중익기탕, 만금탕, 육미지황탕이 쓰여진다. 녹용은 역시 상대가 좋다.

소아기침

소아의 기침은 감기후에 오는것으로 육미지황탕에 잘 가미하여 녹용과 함께 사용하면 꺼지는 호롱불에 기름붓는 식으로 잘 치료가 된다.

천식

천식은 숨이 차는 증상인데 이것도 기관지가 건조되거나 확장되어서 생기므로 녹용상대를 쓰면 된다.

처방으로는 금수육진전, 육미지황탕, 소자로담강기탕등이 사용된다.

당뇨병

당뇨병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지만 물을 많이 마시고 피로가 많고 의욕이 상실되고 과식하려고 한다. 여기에도 녹용이 절대적이다.

당뇨병은 약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당뇨는 속히 치료치 못하면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된다.

여기에 녹용이 절대적이다. 처방은 육미지황탕이나 보중익기탕등이 사용되는데 녹용과 합하여 복용했을때 혈당량이 현저하게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녹용이 당뇨에는 절대적이다. 필자는 수백명의 당뇨환자에게 녹용을 권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백혈병

백혈병은 혈담이라하여 골수암의 일종인데 수술 또는 약물로 수명을 연장하거나 치료하고 있으나 완치가 거의 어려운 질환이다.

한방에서도 백혈구나 적혈구의 감소현상으로 녹용과 녹각을 합해서 치료하는데 보혈과 칼슘보충을 또는 청혈시킴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

본 필자의 임상경험으로 거북이와 자라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좌골신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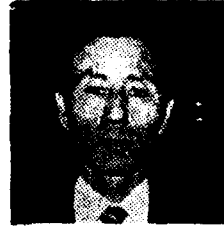
좌골신경통은 요추에 추간판이 탈출되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뻣기는 증상이다. 심한 경우 잠을 이룰수 없도록 통증이 심하다.

좌골신경통의 원인은 타박이나 교통사고도 있으나 주 원인은 신장기능이 약해서 생긴다. 신장이 주관하는 기관은 모든 뼈, 관절, 치아, 머리, 귀, 눈동자, 손톱발톱, 물을 저장하고 빼주는 작용까지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서 키크는 약을 쓸때 신장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녹용하대와 녹각이 절대적이다. 특히 좌골신경통은 부인에게 많다. 산후조리 부족이나 다산 과로 탓이다. 육미지황탕 등에 녹용을 가미하여 사용하면 완치될수 있다. 이와같이 녹용은 보약으로만 쓰여진다는 오해가 있는것 같으나 절대적으로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녹용의 수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산 강용을 만주나 이북등에서 가져와 어느 환자나 값싸게 복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江茸이라하면 사슴이 그리 크지 않고 사슴뿔의 질의 강도가 강하고 강원도에 서식하였는데 6.25의 참변으로 이남에는 멸종된 것으로 안다.

4. 유통현황



崔 俊 燮
(한약도매협회장)

녹용은 아주 옛날부터 탁월한 효능이 인정된 한약재로 국내 생산량이 미약하여 다른 한약재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어 왔으며 국내 소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녹용의 수입량은 1980년대 초에는 연간 약 10t에 불과했으나 국민 소득증대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연간 106t의 녹용이 수입되었고 금액으로는 4천3백만 달러를 넘는 등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용은 산지와 사슴의 종류에 따라 약효에도 차이가 많은데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는 녹용은 소위 원용(元茸)이라 불리는 시베리아산 馴鹿의 뿔을 비롯하여 2지 매화록(화용), 마록(갈갈이), 3지 매화록, 적록 등이며 녹용 수입 초창기에는 원용과 화용만이 유통되기도 했다.

주요 수입 대상국도 처음에는 중국과 소련 두나라에 국한되었으나 지금은 뉴질랜드와 미국은 물론 동유럽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등 수입선이 다변화되고 수입량은 뉴질랜드산이 가장 많으며 중국, 소련, 미국 등지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개방화로 소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